



공동체 소식

연중 제 17주일



아버지, 저희 형제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바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니, 그 가르침에 따라, 저희가 성령의 힘으로 아버지를 신뢰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7월 기도지향

- 박재천(알베르토), 박계숙(헬레나) 가정
- Michael Gorman, 한교숙(헬레나)가정

8월 기도 지향 : 문석찬 요셉, 백문주 엘리사벳 가정 / 박성기 모이세, 김정옥 수산나 가정

주간 전례

- 7/29(월) 성녀 마르타 기념일
- 7/31(수) 성 이냐시오 데 로운라 사제 기념일

신심미사

- 첫금요일 : 8/2(금) 오전 10시 미사 / 십자가의 길
- 첫토요일 : 8/3(토) 오전 10시 미사 / 미사 30분 전 묵주기도

셀 기도 주일 팀

- 첫 모임 : 8/11(일) 중심미사 후, 오후 1시
- 장소 : 회관

초청 국악공연

- 일시 : 7/30(화) 오후 7:00 ~9:00
- 장소 : Emmanuel Baptist Church
10100 Matcalf Ave. Overland Park, KS 66212

광복절 기념 소프트볼 대회

- 일시 : 8/10(토) 오전 9시
- 장소 : Heritage Park Softball Complex

기타

- 저희 한인 공동체의 친교와 미래를 위해 주일 미사만큼은 본당서 '함께' 하길 바랍니다. '나 하나쯤이야'하고 소홀히 한다면 공동체의 미래도 없습니다.

- 8/11(일)은 "성모승천 대축일"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이며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미사에 참여합시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34	217	170/175	400

주일미사 복사

금주	안광민(야고보), 이원준(요한)
차주	정병훈(보니파시오), 김준영(요셉)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수연(율리안나)	차호섭(요 섯) 차서은(세라피나)
차주	박혜정(카타리나)	류기범(요 섯) 신혜경(마리아)

애찬 봉사자

금주	김시연, 조경희, 이대숙, 김말자, 문정윤
차주	백문주, 최은미, 박정옥, 안이, 박정자

헌금 봉사자

금주	김시연(엘리사벳), 백문주(엘리사벳)
차주	김태중(예레미야), 정수한(베드로)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07/14	67명	349불	550불
07/21	87명	382불	890불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부 편집 : 박동희 만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C: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 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0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 17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로마 8,26)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맡깁시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우리가 마음을 다해 바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성화해설

식사 전 기도 (장 바티스트 시메옹 샤르댕, 1744년, 캔버스에 유채, 에르미타주 미술관 소장, 러시아)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된 모든 이를 저희도 용서하시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루카 11,2-4) 주님의 기도는 매일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마음과 정신 안에 늘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나 길을 걸을 때, 우리 몸이 잠들었을 때에도 마음은 늘 이 기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믿음의 문」 9항 참조)

지영현 시은 신부 |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제 1 독서 : 창세 18,20-32 < 제가 아뢴다고 주님께서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

화 답 송 : 

주 님 을 부 르 던 날 주 님 제 게 응 답 하 셨 나 이 다

- 제 마음 다하여 주님 기리오리다 제 입의 말씀 들어 주셨기에 천사를 앞에서 당신께 노래하오리다 성전앞에 엎드리오리다. ◎
- 어지심과 진실하심 우러르며 당신 이름을 찬양하오리니 주님을 부르던 날 당신께서는 제게 응답하시고 제 영혼의 힘을 북돋아 주셨나이다. ◎
- 정녕코 주님께서는 높으시어도 낮고 낮은 사람을 여겨보시며 멀리서도 거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제가 비록 고생길을 걸을지라도 당신은 이몸을 살려주시고 당신 손을 펴시어 원수의 분노 막으시나이다. ◎
- 당신 오른손으로 저를 구하여 주시나이다 저를 위해 시작하신 일 주님께서서는 마치시리다. 주님 너그러우심이 영원하시오니 손수하신 당신 일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

제 2 독서 : 골로 2,12-14
<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하느님께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네. ◎

복 음 : 루카 11,1-13 <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

세 마

“기도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오래전 본당의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학창시절 공부를 잘해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기업 중 손꼽히는 곳에 들어가 순탄하게 사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울증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병세의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던 그는 결국 상태가 나빠져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대인 관계마저 힘들어져 사람들과 거의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울증으로 고통스러워 하던 그는 그때부터 몇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병은 잘 낫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어 실망한 나머지 신앙과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성경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어 그때부터 기도의 내용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주님! 제 병이 낫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병을 극복하는 힘을 주세요.’라고 말입니다. 그 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던 청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부님, 기도 내용을 바꾼 이후로 저는 몸과 정신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신부님께 찾아올 수 있는 용기도 생겼습니다. 다시 나빠질 수도 있지만 주님이 힘을 주시면 저는 견딜 것입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오래 기억되는 만남이었습니다. 그 청년을 만나고 나서 저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기도란 무엇인지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고통을 당하면 하느님께 매달리며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면 사실 기도를 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땐 다른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위로와 힘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인이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갖고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루카 11,9) 이처럼 기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극한 상황이라도 마지막까지 희망을 두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에 행복합니다.

명동 지하성당 입구에 걸린 문구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데...”

- 서울대교구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오늘 복음에서 주님은 기도의 방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저희에게 잘못된 모든 이를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루카 11,4)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신앙인이 지녀야 할 참다운 마음 자세를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자비로운 분입니다.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것은 사랑할 수 있는, 진실하게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해야 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중물

로사리오(목주기도) 묵상

로사리오는 하늘과 땅 사이에 흐름의 순환을 이어주는 신비에 가득 찬 끈이고, 혼란스런 이 세상에 하늘이 내린 구원의 밭줄이다.

로사리오는 지친 이들과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떠받쳐 주는 지게이며, 열두 사람 이상의 힘을 부여할 수 있는 허리띠이고, 가장 비천한 사람도 그것을 입고 하늘의 전례에 참여할 수 있는 영대이다.

로사리오는 가난한 영혼과 큰 죄인을 영원한 천상 축복을 받은 자와 결부시켜주는 끈이며, 죽음을 면치 못하는 인간이 하느님의 신비인 헤아리기 어려운 미로 속으로 더듬어 나아갈 수 있는 끈이고, 피어오르는 장미 꽃다발이며 그것을 통해 우리는 타오르는 가시덤불 속에서도 호소한다.

로사리오는 그리스도인이 자기 사랑과 욕망, 나쁜 성격과 번뇌를 매어두고 사탄을 묶어 둘 수 있는 사슬이며, 우리에게서 속된 것을 몰아낼 수 있는 매듭이고, 악의 철갑으로 무장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 소년 다윗이 자신의 신앙심을 재어 넣은 돌팔매 투석기이다.

로사리오는 우리가 어린 아이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리아께서 우리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끄는 끈이며, 피안을 향해 나아가는 나룻배 위에 있는 이들의 닻줄이고, 영원한 고향의 항구에서 우리가 정박하게 되는 닻의 밭줄이다.



‘신앙의 해’ 교육자료

제 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다”



46. 그리스도의 전 생애가 성부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오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하느님! ……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바쳐짐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히브 10,5-10).

성자께서는 강생하신 첫 순간부터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당신 구속 사명 안에 받아들이십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요한 4,34).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1요한 2,2) 되신 예수님의 제사는 성부와 이루는 사랑의 일치를 표현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요한 10,17).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요한 14,31).

예수님 생애 전체는 성부의 구원하시는 사랑의 계획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원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607항).

- 『저는 믿나이다』, 청주교구 복음화 연구소, 2012 -